

문화

놓치지 마세요  
거장들의  
클래식



강동석 실내악단

■첼리스트 미야스키

2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강동석과 함께...

2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김정원

29일 5·18기념센터 민주홀

■소프라노 조수미

12월 6일 광주 문예회관



▲첼리스트 미사 미야스키



▲피아니스트 김정원

‘정상급 클래식 명인들이 몰려온다.’

첼로의 거장 미사 미야스키를 비롯, 클래식 명연주자들이 잇따라 공연에 나선다. 일부 공연의 경우 티켓 가격을 대폭 낮춰 관객들의 부담을 줄였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사 미야스키는 22일 오후 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을 갖는다.

딸 엘리 미야스키의 피아노 반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미야스키는 소스타코비치의 ‘첼로소나타’, 베토벤 ‘첼로소나타 2번’, 드뷔시의 ‘첼로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엘리지’, 파야의 ‘스페인 민요모음곡’을 들려준다. 티켓가격은 3만원~1만원 선이다.

광주문예회관은 우수 작품 기획 공연으로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 여행’을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특히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의 지원을 받은 이번 공연은 티켓 가격을 1~2만원대로 대폭 낮춰 관객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강동석을 비롯해 조영창(첼로·독일 예텐폴크방대 교수), 양성원(첼로·연세대 교수), 김영호(피아니스트·연세대 교수), 김상진(비올라·연세대 교수) 등 최고의 연주자가 함께 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랑스의 ‘피아노 4중주곡 제 1번 G단조’,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 39’,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D단조 작품 32’ 등이다. 문의 062-510-9253.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5·18기념센터 민주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해마다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솔리스트로는 최초로 10여개 도시에서 순회연주회를 가졌던 김 씨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해외연주에 몰두할 예정이라 팬들이 놓치면 아까운 연주회다.

‘소프라노 스페셜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씨는 2010 소프라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이번엔 소프라노 곡들 위주로 레퍼토리를 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소프라노의 작품 가운데 가장 격렬한 곡으로 꼽히는 ‘소

나타 2번’을 비롯해 그의 대표곡인 ‘녹턴 D플랫 장조 작품 27-2’를 들려준다. 또 부조니가 편곡한 바흐의 ‘합창 전주곡 -이방인의 구조로 오십, 모차르트의 ‘반짝 반짝 작은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등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5만5천원~3만3천원. 인터파크·티켓링크 예매 가능. 문의 02-2658-7890.

소프라노 조수미도 오는 12월 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Dream with me’라는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크로스오버 가수 카이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Missing you’ 삼입곡 등 세계의 사랑 노래를 들려준다. 티켓 가격 16만 5천원~7만7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사에서 찾는 ‘깨달음의 길’

장성 백양사 21~25일까지 ‘야단법석’

“겨울로 가는 길목, 산사에서 깨달음을 찾아주세요.”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 스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여는 야단법석을 펼친다. 지난 8월 한국불교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던 남원 실상사 야단법석을 잇는 두번째 야단이다.

이번 야단법석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동사섭 이사장 용타 스님, 범속

사 범속선원장 월암 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목 스님이 강사로 나서 깨달음과 한국불교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데,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희론(戲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한다”고 야단법석의 취지를 밝혔다.

고우 스님은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

음의 길’, 시몽 스님은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 용타 스님은 ‘동사섭’을 주제로 강연한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 각목 스님과 향봉 스님은 각각 초기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모색한다.

백양사 야단법석의 입석식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이 입재법어를 한다. 선착순 200명이 참여 가능하며 출가자 10만원, 재가자는 20만원의 동참비가 있다. 속석하지 않고 강의만 청강할 경우 10만원. 문의 061-392-75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종교문화학회 ‘삶과 죽음’ 학술토론

내일 전담대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해보는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종교문화학회는 20일 오후 2시 전담대 인문대 1호관에서 ‘생

명윤리와 자살의 문제’라는 주제로 2009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담대 종교문화연구소(소장 김기현)와 윤리교육과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광수 교수(부산의국어대)와 김영일 교

수(미국 크리스찬바티스트신학대), 박건주 교수(전남대)가 각각 논문을 발표하며 바스무콜(유네스코 광주·전남 담당이사), 최성식, 김지수 교수(전남대)가 논평자로 나선다.

학술대회 후에는 학회 정기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30-39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인 김병학 ‘재소 고려인의 삶’ 에세이집 출간

재소(在蘇) 고려인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담은 에세이집이 최근 출간됐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김병학(42·사진) 시인의 ‘김병학 디아스포라 에세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인터북스 펴냄).

김 시인은 이번 에세이집을 통해 스탈린의 강제 이송 뒤 중앙아시아 옛 소련령 일대의 황야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삶을 보여주

고 있다.

신인 출신인 김 시인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우스토포 광주한글학교 교사, 알마타라 고려선산한글학교교장, 알마타대학교 한국어과 강사를 거쳐며 한글을 가르쳤으며 1995년부터는 구소련 고려인들의 민족지 고려일보에서 유일한 한국인 기자로 일했다.

책에는 고려일보에서 쓴 기사와



칼럼 대부분이 수록돼 있다. ‘이별도 아름다웠다’ ‘중앙아시아가 고려인의 빛과 그늘’ ‘제자들을 떠나보내며’ 등 5부로 나눠 총 46편의 글과 사진이 실려 있다.

김 시인은 2005년 시집 ‘천산에 올라’를 냈으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인권영화제 ‘시대를 담다’

22일까지 전담대 용봉문화관  
6개 섹션 국내외 35편 선보여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 낮은 곳을 향하는 시선...”

제 14회 광주인권영화제가 19~22일 전담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에서 열린다.

‘일방통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불은시대’, ‘다름으로 닮은’, ‘호남인권별곡’, ‘애니로 보는 세상’ 등 기존의 행사에서 만났던 색

선과 올해 새롭게 마련된 ‘특별섹션-20대, 시대를 말하다’ 등 6개 섹션에서 국내외 35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19일 오후 8시30분에 상영되는 개막작은 웅산참사의 문제점을 짚어본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폐막작(22일 오후 7시30분)은 2007년 뉴코아 김스클럽 해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평촌의 언니들’이며 두 작품 모

두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그밖에 실감남 이야기를 다룬 ‘나는 엄마계의 이단아’, 자립적인 공장을 모색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린 ‘브르크만 여성노동자’, 전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소설 속 모습을 짚어본 ‘2000년대 한국 문화속 불안한 청춘들’ 등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슈퍼밴드 ‘사이’의 노래 공연이 펼쳐지며 이윤성 작가의 관화전 ‘여기, 사람이 있다’, 인권 책방, 영화취미, 인권카페 등이 진행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gjhr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29-7576. 김미은기자 mekim@

새벽 이슬 머금은 사과 화폭에

박병우 전- 대동갤러리

서양화가 박병우씨가 19~25일 광주 서구 금남로 대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빛-결실’을 주제로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한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사과 연작을 선보인다.

붉게 익은 사과와 나뭇잎 등을 섬세한 필치로 화면 가득 담아냈고, 빛의 강약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과의 표현에 맞춘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을 발하는 모습 등이 마치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광주를 오가며 13차례 개인



‘빛-결실’

전을 열었고, 무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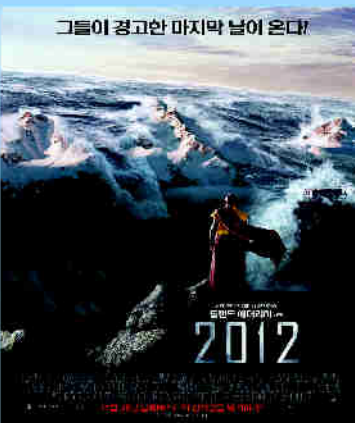
영 / 화 / 안 / 내

영화에 빠지는 재미

메가박스

1관	2012 (12사)	최고급관
2관	백야행 (18사)	
3관	청담보살 (15사)	
4관	청담보살 (15사)	
5관	2012 (12사)	
6관	솔로이스트 (12사)	
7관	백야행 (18사)	
8관	2012 (12사)	
9관	2012 (12사)	

• 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역사거리 ☎예매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2관	킬미 (18사)/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
3관	2012 (12사)
4관	2012 (12사)
5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사)/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관	청담보살 (15사)
7관	2012 (12사)
8관	집행자 (18사)
9관	청담보살 (15사)
10관	2012 (12사)

힐트시탈 영화시탈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예남점 (무역화관옆)



1588-7941 상무점연결 병행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들 (18사)
2관	청담보살 (15사)
3관	집행자 (18사)
4관	킬미 (18사)
5관	청담보살 (15사)
6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7관	2012 (12사)
8관	2012 (12사)
9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10관	2012 (12사)

• 50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담구장



고려시탈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담무선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솔로이스트 (12사)
2관	청담보살 (15사)
3관	2012 (12사)
4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사)
5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관	백야행 (18사)
7관	청담보살 (15사) / 2012 (12사)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주차 사유나(오전5시~오후11시)



씩잡있는 영화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동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2012 (12사)
2관	2012 (12사)
3관	2012 (12사)
4관	청담보살 (15사)
5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세)
6관	집행자 (18사)
7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우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운소극장 • www.primuschema.com / www.jellicinema.co.kr • 총상관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